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하 양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화된 국민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여 간호의 전문화 및 전인적 간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대에 절대로 소외되어서는 안될 간호의 철학적 근간은 Watson(1985)의 돌봄의 과학이며, 그 구성소(curative factors)는 인본-이타적 가치체계의 형성, 믿음-희망의 고취,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민감성 함양 등이다.

이와같이 Waston의 curative factors를 갖추고 전인적인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인격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하려는 자아실현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거인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성실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외부의 가치보다는 내부의 가치에 의해 이끌어지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성격의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도 스트레스와 좌절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Topalis & Aguilera, 1978).

이와같은 자아실현을 향한 노력은 간호사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전인간호와 간호의 전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주역인 간호대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이다. 이는 간호교육을 통해서 확립되어야 하는데, 간호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평균연령이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정체감·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이 확립되어야 하나, 발달과업의 실패는 역할 혼동과 정체감 혼미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Erikson, 1960; 서봉연, 1975).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성숙은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Newman & Newman, 1984; Olczak & Goldman, 1975).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잠재력을 발달시키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간호교육자의 역할들 중 하나는 학생들이 거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전문대학생들의 자아실현 정도를 알아보고 주·야간 및 일반특성별 자아실현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및 상담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연구의 목적

- 1) 전체 대상자의 일반특성을 알아본다.
- 2) 전체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를 파악한다.
- 3) 전체 대상자의 일반특성에 따른 자아실현 정도를 파악한다.
- 4) 주간 및 아간대학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자아실현 정도 : 인간의 기본적 성향으로서 자기의 내면적 핵심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본질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완전한 상태로 기능(full functioning)'하려는 것(Maslow, 1970)이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는 Shostrom(1966)이 개발한 인격적 지향검사(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를 기초로 김재은, 이관자(1983)가 제작한 자아실현검사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다.

II. 문헌고찰

1. 자아실현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란 인간은 무한한 긍정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고, 또한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을 말하는데(Maslow, 1974), 이 용어의 처음 사용은 Goldstein(Shostrom, 1976; Frick, 1982)의 유기체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이론의 주된 특징은 첫째, 정상적인 성격은 통일성, 일관성 및 통합성을 이루며 체계화된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둘째, 개인은 주로 하나의 충동에 의하여 동기화되며 자아실현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셋째, 유기체는 그의 환경을 선택하지만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Hall & Lindzey, 1978).

인성 이론가들은 인간 내부에 완전성(perfectness), 총체성(wholeness)과 특정형태나 표현의 자아실현을 달성하려는 열망과 경향이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한다(Frick, 1971).

각 이론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Jung은 자아실현을 “개발화(individuation)”와 같은 의미로 보고, 이것은 온전한 상태를 달성하려는 성격발달의 과정 즉 “자신답게 되는 과정(coming to selfhood)”이며,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이 경향은 굉장히 강한 힘(force)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Schultz, 1977).

자아실현 이론을 구체화시킨 Maslow(1974)는 자아실현을 인간만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표현한 상태, 즉, 자기 자신의 본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fully functioning)”이며, 여기에 자기의 내면적 핵심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질병, 신경증, 정신병 또는 기본적인 인건 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 등이 가장 적게 존재하는 상태를 포함시켰다.

또한 자아실현인의 15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이상우와 정종진, 1992).

- 1) 효율적으로 현실을 지각하고 2) 본성, 타인 및 자기 자신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3) 자발성, 솔직성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4)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문제 중심적이고 5) 사생활(privacy)과 분리(detachment)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6) 자율적 기능이 있으며 7) 계속적으로 감정의 신선함이 있고 8) 신비로움이나 절정감을 경험하고 9) 사회적 관심이 있으며 10) 더 깊은 대인관계를 맺고 11) 민주적인 성격구조를 갖고 12) 수단과 목적이 있으며, 선과 악을 구별하고 13) 격개심이 없는 유우머 감각과 14) 창조성을 지니고 15) 문화전제(enculturation)에 단순히 동조하는 것을 싫어하고,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기 보다는 초월한다.

Fromm은 자아실현을 “생산적(productive)”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것(fully functioning)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는 Allport의 “성숙한 성격”과 Maslow의 “자아실현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적 성향(productive orientation)”이라 용어를 사용했다(Schultz, 1977).

이상의 몇가지 주장으로 자아실현을 재정의하면, 자기 자신에 의해 동기화되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시간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융통성이 있고, 거기 내면의 느낌이나 욕구, 생각들에 대해 민감하여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므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더 나은 자기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의 경향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의식적인 차원에서 주관적 자아개념과 일치하도록 행동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압력이라고 설명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이란 최종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하고 폭넓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허철수, 1990).

사아실현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실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와 막내가 중간 출생자보다 자기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반적인 하부요인에서 중간 출생자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이광자, 1976). 반면에 배순경(1977)과 박윤수(1987)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실현은, 무종교 집단이 실존성이 높았고(이광자, 1976; 배순경, 1977; 엄과 하, 1993). 한성세(1979)의 연구결과는 무종교 집단에서 실존성, 포용성이 높은 반면에 자기수용성은 유종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정현숙(1984)의 연구에서는 무종교 집단이 자아실현성이 높았다.

Ilardi & May(1968)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3년 동안 POI를 실시한 결과, 첫째 동안에 자아실현 방향으로 유의미한 성장이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

간호사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성 연구에서 순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정현숙, 1984), McClosky(1974)는 간호사에게는 작업에서의 외적 환경요인보다 내적 환경요인의 심리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Maslow(1970)는 자아실현 즉 성취감의 정도가 만족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Petosa(1987)는 자아실현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취한다고 보고하였다.

Thurston 등(1968), Barley(1969), Reece(1961), 그리고 박순자(1976)의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2, 3, 4학년 진제 학생의 진문과목 성적과 자아실현 점수의 각 요인과의 관계는 자아실현성에 있어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관련 정신과 실습과정과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에서 이광자(1976)는 임상 실습 후에 측정된 자아실현 성취도 중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척도는 시간효율성, 내부지향성, 자기가치감, 인간관, 포용성이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다음은 중재 후의 자아실현성을 조사한 연구들 살펴보면, Trueblood와 McHolland(1971)는 "인간 잠재력" 집단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자아실현이 될 수 있

도록 돕는 효과를 보고했다. 14주간 계속되는 인간 잠재력 세미나에 등록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내부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자기긍정성, 인간관의 척도들이 유의미하게 높았다(설기문, 1988).

Young과 Jacobson(1970)은 15시간의 마라톤집단(maraton group) 경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실현성 척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밝힌 바 있다.

김미자(1983)는 집단상담과 자아실현의 연구결과 집단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 전보다 자아실현도가 향상됨을 보고하였으며, 정신간호상담에서 나타난 자아실현 분석에서 자아실현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상담내용으로는 직장문제, 학습문제, 성격문제, 진학문제로 나타났다(이소우, 박명자, 1987).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기술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 소재 3년제 사립 전문대학 3개교 주·야간에 재학중인 여학생 총 346명을 편의표출하여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자가 보고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시 발생가능한 응답자의 부정확한 대답, 다당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아실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각자에게 알려줄 것을 약속한 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2년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였고, 총 318명이 설문에 답하였으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34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Maslow와 Goldstein의 자아실현 개념에 기초하여 Shostrom이 개발 제작한 Personal Orientation Inven-

tory(POI)를 김재은, 이광자(1977)에 의해 번안 수정하여 작성된 표준화된 한국판 자아실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서로 대조되는 가치를 나타낸 진술문을 짝지운 1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조되는 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측정요인은 시간척도와 지향척도로 대별되고 시간척도는 시간효율성과 시간비효율성으로 나뉘며, 지향척도는 내부지향성과 외부지향성으로 나뉜다. 이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시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의 8개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모두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반분신뢰도로 하위검사에 따라 Cronbach's $\alpha=.60\sim.88$ 이었고(이소우와 박명자, 1987), 엄과 하(199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다.

이 검사의 기준은 percentile과 T척도 C척도의 3가지 점수로 파악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 간의 비교를 쉽게 알리고 할 때는 C척도를 이용한다. C척도의 점수는 0-10점 사이에 위치하는데 4-6점 사이에 있을 경우 정상적·무난한 성격이고, 3점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아실현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7점 이상일 때는 자아실현도가 높다고 본다.

각 요인 척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간효율성/비효율성(Time competent /Incompetent : TC)(23 문항)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과거지향성과 현재지향성 혹은 미래지향성으로 구별하여 측정한다. 이 점수가 높으면 비교적 현재 지향적으로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며, 현재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에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과거지향적이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② 내부지향성/외부지향성(Inner directed /Outer directed : I)(107 문항)

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자신을 향해 있는지 타인을 향해 있는지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내부 혹은 자기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주로 자신의 내면적인 원리나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외부 혹은 타인지향적인 사람으로서 대부분 동료나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자아실현성(Self actualizing values : SAV)(22 문항)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점수는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며 사는 사람이고 낮은 점수는 부정하는 사람임을 암시한다.

④ 실존성(Existentiality : EX)(23 문항)

자아실현을 보충하는 척도로서 실존성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원칙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적용에 있어서 판단을 잘하여 적용하는가를 측정한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치의 적용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음을 나타내주며, 반대로 이 점수가 낮으면 원리원칙이나 가치에 강하게 집착하여 강박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⑤ 감수성(Feeling reactivity : FR)(21 문항)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내주며 반대로 이 점수가 낮으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내 준다.

⑥ 자발성(Spontaneity : S)(16 문항)

이 점수가 높으면 자발적인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낮으면 자기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⑦ 자기 긍정성(Self regard : SR)(15 문항)

이 점수는 자존감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낮은 점수는 자기를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⑧ 자기수용성(Self acceptance : SA)(25 문항)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이 약하고 결점이 많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자신의 나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⑨ 인간관(Nature of man, Constructive : NC) (10 문항)

이 척도는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높은 점수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것을 뜻하며 인간의 본성에 있는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양극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

⑩ 포용성(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 C) (22 문항)

이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 인간관계를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의미있고 친근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낮으면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PSS 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전체 대상자의 일반특성과 자아실현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전체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는 각각 한국여대생 표준집단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t-test로 분석하였다.
- 3) 주간 및 야간 대학별 대상자의 자아실현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t-test로 분석하였다. 주·야간 두 집단의 유사성 검증을 위해 X^2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특성에 따른 자아실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ANOVA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5) 신뢰도 검정용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3개교 전문대학의 일부 학생으로 편의추출하였으므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 특성

총 대상자 346명 중 주간학생은 181명(52.3%), 야간학생은 165명(47.7%)였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16명(62.4%), 3학년 130명(37.6%)이었다. 출생순위별 분포는 첫째가 116명(33.5%,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첫째로 간주함), 중간인 사람이 146명(42.2%), 막내는 84명(24.3%)이었다. 종교 유무별 분포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219명(63.3%), 없는 경우는 127명(36.7%)이었다. 재수 유무별 분포는 재수를 한 경우는 201명(58.1%), 안한 경우는 145명(41.9%)이었다. 자의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242명(69.9%) 타의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103명(29.8%), 무응답이 1명(0.3%)이었다. 부모생존

상태별 분포는 양친이 생존하는 경우가 278명(80.3%), 그 외의 경우는 기타(편부, 편모, 양친망 등)로 간주하여 67명(19.4%), 무응답이 1명(0.3%)이었다. 전공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210명(60.7%), 보통인 경우는 95명(27.5%), 불만족하는 경우는 41명(11.8%)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93명(26.9%), 보통인 경우는 166명(48%), 불만족하는 경우는 87명(25.1%)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주간 및 야간 대학구의 유사성 검증을 위해 X^2 -test를 한 결과, 재수 경험 유무와 선택동기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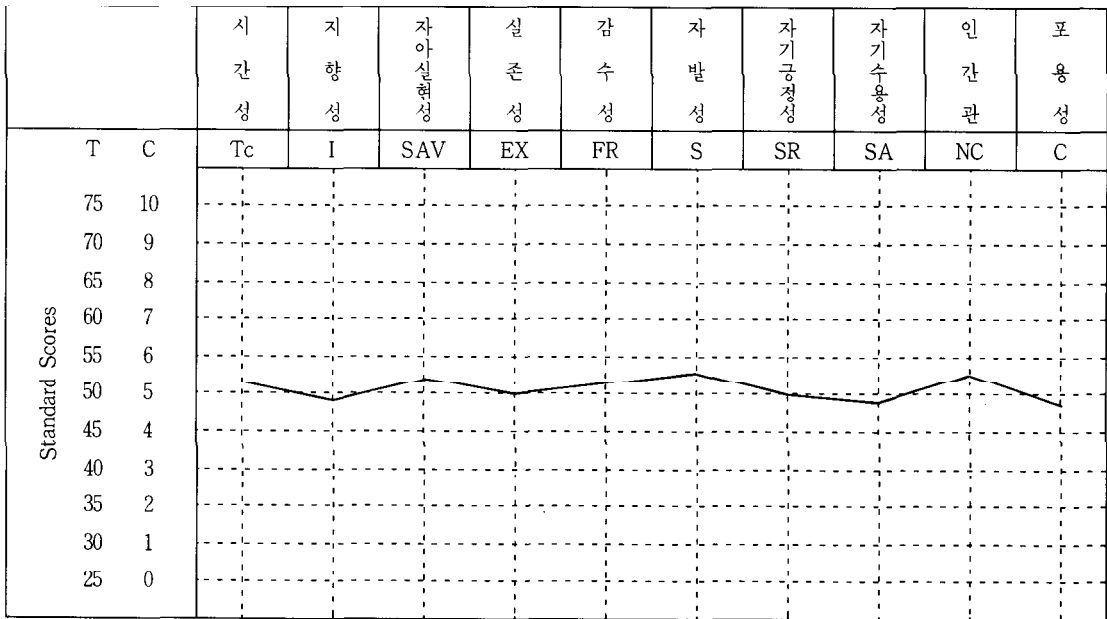
N=대상자수 ()=%

특성	구분	N(%)
학년별	1 학년	216(62.4)
	3 학년	130(37.6)
출생순위	첫째	116(33.5)
	중간	146(42.2)
	막내	84(24.3)
종 교	유	219(63.3)
	무	127(36.7)
재 수	유	201(58.1)
	무	145(41.9)
선택동기	자의	242(69.9)
	타의	103(29.8)
	무응답	1(.3)
부모생존 상태	양친 생존	278(80.3)
	기 타	67(19.4)
	무응답	1(.3)
전공학과 만족도	만 족	210(60.7)
	보 통	95(27.5)
	불만족	41(11.8)
대학생활 만족도	만 족	93(26.9)
	보 통	166(48.0)
	불만족	87(25.1)

〈표 2〉 주간 및 야간 대학군의 유사성 검증

N=대상자수 ()=%

특 성	구 분	주간	야간	집단간의 유사성	
		N(%)	N(%)	검	증
학년별	1학년	108(31.2)	108(31.2)	$X^2=1.00$	df=1
	3학년	73(21.1)	57(16.5)	P=.3179	
출생순위	첫째	69(19.9)	47(13.6)	$X^2=4.3$	df=2
	중간	68(19.7)	78(22.5)	P=.1155	
	막내	44(12.7)	40(11.6)		
종 교	유	113(32.7)	106(30.6)	$X^2= .06$	df=1
	무	68(19.7)	59(17.0)	P=.8123	
재 수	유	72(20.8)	129(37.3)	$***X^2=50.74$	df=1
	무	109(31.5)	36(10.4)	P=.0000	
선택동기	자의	116(33.5)	126(36.4)	$X^2=5.28$	df=1
	타의	64(18.5)	39(11.3)	P=.0215	
	무응답	1(.3)			
부모생존 상 태	양친생존	152(43.9)	126(36.4)	$X^2=3.09$	df=1
	기 타	28(8.1)	39(11.3)	P=.0786	
	무응답	1(.3)			
전공학과 만 족 도	만 족	109(31.5)	101(29.2)	$X^2=1.06$	df=2
	보 통	53(15.3)	42(12.2)	P=.5885	
	불만족	19(5.5)	22(6.3)		
대학생활 만 족 도	만 족	48(14.0)	45(12.9)	$X^2= .06$	df=2
	보 통	88(25.5)	78(22.5)	P=.9690	
	불만족	45(12.9)	42(12.2)		
계		181(100.0)	165(100.0)		



〈그림 1〉 전체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 비교

2. 전체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 비교

전 대상자의 자아실현 평균점수는 C척도 4-6점 사이에 있어 중등도의 무난한 성격의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간호학을 전공하는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의 특성 및 수준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 여대생 표준집단 결과(설기문, 1988)와 비교(t-test)를 한 결과,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및 포용성이 유의한 차(P<.001)를 나타냈다. 그중 대상집단의

자아실현성, 인간관 점수가 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향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포용성이 표준집단보다 유의하게(P<.001) 낮았다(표 3 참조).

3. 주간 및 야간대학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 비교

주간 및 야간대학 대상자의 자아실현은 시간성(p<.001), 실존성, 자기수용성, 자발성(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4 참조).

<표 3> 본 연구대상자와 여대생 표준집단간의 자아실현(하위요인) 비교

자아실현 하위요인	구분 여대생표준집단(실수=398)		본 연구대상자(실수=34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성	13.63	2.71	13.53	2.36	.53
지향성	64.21	9.07	61.82	8.07	3.77***
자아실현성	15.63	2.75	16.31	2.51	-3.50***
실존성	12.89	2.82	12.00	2.82	4.29***
감수성	12.40	2.75	12.69	2.45	-1.51
자발성	9.15	2.57	9.54	2.36	-2.14
자기긍정성	9.28	2.24	9.01	2.30	1.62
자기수용성	12.62	2.81	11.97	2.61	3.25***
인관성	6.87	1.58	7.23	1.50	-3.17***
포용성	11.82	2.98	11.02	2.64	4.47***

**P<.001

<표 4> 주간 및 야간대학 대상자의 자아실현(하위요인) 비교

자아실현 하위요인	구분 주간(N=181)		야간(N=165)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성	14.11	2.28	12.90	2.29	4.90***
지향성	62.29	8.24	61.30	7.87	1.15
자아실현성	16.20	2.65	16.42	2.36	-.83
실존성	12.29	2.95	11.69	2.63	1.98*
감수성	12.76	2.52	12.61	2.37	.55
자발성	9.30	2.32	9.80	2.38	-1.98*
자기긍정성	8.94	2.41	9.10	2.19	-.64
자기수용성	12.31	2.64	11.59	2.53	2.57*
인관성	7.29	1.55	7.18	1.45	.69
포용성	11.09	2.73	10.95	2.55	.48

*P<.05 ***P<.001

<표 5> 전체 대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실현(하위요인) 비교

특성	자아실현	하위요인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
학년별	1학년	평균	13.38	61.60	16.24	11.98	12.36	9.36	8.94	11.82	7.24	10.82
	(216)	표준편차	2.28	7.51	2.47	2.76	2.32	2.36	2.31	2.54	1.38	2.55
	3학년	평균	13.78	62.23	16.42	12.05	13.23	9.83	9.14	12.21	7.23	11.36
	(130)	표준편차	2.49	8.95	2.59	2.92	2.56	2.34	2.29	2.71	1.69	2.76
		t값	-1.52	-.74	-.63	-.22	-3.25**	-1.80	-.78	-1.33	.03	-1.86
출생순위	첫째	평균	13.37	61.56	16.51	11.97	12.28	9.63	9.25	11.53	7.34	10.83
	(116)	표준편차	2.35	7.74	2.46	2.73	2.39	2.42	2.31	2.52	1.37	2.38
	중산	평균	13.77	61.87	16.32	12.08	12.82	9.38	8.88	12.20	7.16	11.10
	(146)	표준편차	2.39	8.18	2.53	2.88	2.43	2.34	2.34	2.66	1.38	2.79
	막내	평균	13.33	62.08	16.01	11.90	13.01	8.93	8.93	12.17	7.21	11.17
	(84)	표준편차	2.33	8.42	2.56	2.86	2.51	2.24	2.24	2.61	1.85	2.74
		F값	1.29	.11	.95	.11	2.56	.60	.93	2.43	.51	.50
종교	유	평균	13.50	61.37	16.27	11.69	12.53	9.53	9.05	11.82	7.15	10.87
	(219)	표준편차	2.23	8.09	2.52	2.95	2.37	2.38	2.37	2.60	1.61	2.53
	무	평균	13.57	62.59	16.41	12.54	12.97	9.56	8.95	12.22	7.39	11.29
	(127)	표준편차	2.59	8.09	2.51	2.48	2.56	2.34	2.20	2.62	1.28	2.81
		t값	-.27	-1.36	-.58	-2.74**	-1.63	-.13	.38	-1.37	-1.43	-1.44
재수	유	평균	13.39	61.90	16.40	11.84	12.65	9.53	9.10	11.91	7.05	10.99
	(201)	표준편차	2.42	8.18	2.47	2.83	2.45	2.45	2.20	2.49	1.58	2.58
	무	평균	13.72	61.70	16.17	12.23	12.74	9.55	8.89	12.06	7.49	11.07
	(145)	표준편차	2.28	7.95	2.58	2.79	2.44	2.24	2.44	2.78	1.36	2.73
		t값	-1.26	.22	.84	-1.26	-.37	-.09	.86	-.53	-2.71**	-.27
선택동기	자이	평균	13.60	62.49	16.61	11.92	12.76	9.75	9.25	11.91	7.32	11.03
	(242)	표준편차	2.31	7.98	2.48	2.72	2.46	2.27	2.24	2.59	1.45	2.68
	타의	평균	13.36	60.31	15.62	12.17	12.52	9.08	8.49	12.12	7.03	11.03
	(103)	표준편차	2.49	8.13	2.46	3.03	2.43	2.50	2.37	2.69	1.61	2.55
		t값	.86	2.31*	3.40**	-.78	.83	2.44*	2.86**	-.67	1.66	.01
부모생존상태	양친생존	평균	13.46	61.40	16.23	11.94	12.59	9.45	8.93	11.86	7.26	10.93
	(278)	표준편차	2.30	8.08	2.53	2.83	2.45]	2.43	2.38	2.54	1.54	2.64
	기타	평균	13.76	63.16	16.58	12.19	13.05	9.87	9.31	12.33	7.13	11.30
	(67)	표준편차	2.56	7.25	2.44	2.17	2.38	2.02	1.93	2.77	1.35	2.52
		t값	-.79	-1.64	-1.03	-.68	-1.38	-1.30	-1.22	-1.34	.59	-1.03
만족도	만족	평균	13.72	62.62	16.73	11.82	12.84	9.75	9.34	11.94	7.28	11.08
	(210)	표준편차	2.37	8.34	2.46	2.93	2.44	2.36	2.18	2.60	1.50	2.78
	보통	평균	13.33	60.83	15.97	12.33	12.27	9.08	8.71	11.96	7.33	10.98
	(95)	표준편차	2.97	7.94	2.44	2.69	2.48	2.39	2.38	2.84	1.50	2.45
불만족	평균	13.02	60.00	14.90	12.17	12.88	9.49	8.05	12.12	6.80	10.83	
(41)	표준편차	2.46	6.47	2.37	2.47	2.34	2.20	2.42	2.14	1.50	2.39	
		F값	1.97	2.81	10.86***	1.13	1.89	2.66	6.81***	.08	1.95	.17
대학생활만족도	만족	평균	13.96	63.60	16.74	11.98	12.88	10.00	9.76	12.41	7.32	11.25
	(93)	표준편차	2.20	7.77	2.49	2.23	2.23	2.25	2.24	2.63	1.30	2.35
	보통	평균	13.59	61.75	16.44	12.67	12.67	9.44	8.94	11.77	7.25	11.02
	(166)	표준편차	2.39	8.27	2.49	2.52	2.52	2.37	2.16	2.81	1.50	2.77
불만족	평균	12.95	60.02	15.59	12.52	12.52	9.23	8.36	11.87	7.11	10.78	
(87)	표준편차	2.40	7.68	2.47	2.54	2.54	2.41	2.43	2.11	1.70	2.70	
		F값	4.23*	4.52*	5.33**	.49	.51	2.70	8.95***	1.86	.44	.70

*P<.05 **P<.01 ***P<.001

4.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실현

출생순위와 부모생존 상태별 자아실현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별 자아실현 정도는 하위요인 중 감수성에서 3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종교 유무별로 무종교집단이 유종교집단보다 실존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재수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실현 정도는 재수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인간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대학선택동기별로는 자의 집단이 타의 집단보다 자아실현성과 자기긍정성($P < .01$), 지향성과 자발성($P < .05$)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별로 보면 전공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 자아실현성과 자기긍정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 < .001$). 대학생활 만족도별로 보면 대학생활에 만족한 사람이 시간성과 지향성($P < .05$), 자아실현성($P < .01$), 자기긍정성($P < .001$)에서 차를 보였다(표 5 참조).

V.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실현정도는 C척도 4-6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등도의 무난한 성격을 소유한 집단임을 시사하며, 이는 엄과 하(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체 대상자와 한국 어대생 표준집단의 자아실현 비교를 통해 자아실현 정도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상집단이 표준집단보다 자아실현성과 인간관의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상자들이 표준집단보다 자아실현성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며,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본다(김과 이, 1983)는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지향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포용성의 척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대상집단이 표준집단보다 외부 혹은 타인지향적이며, 원리원칙이나 가치에 강하게 집착하여 강박적이며, 자신의 나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간호교육자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 세미나(Trueblood & McHolland, 1971), 마다튼집단 훈련(Young & Jacobson, 1970), 자기 및 타인 이해, 피이드백 주고받기, 자기노출, 감수성 훈련(구본용, 1986), 집단상담(김미자, 1983), 정신간호상담(이와 박, 1987), 임상실습(이광자, 1976) 등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알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등

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간 및 야간 대학별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 비교에서는 주간집단이 야간집단보다 시간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척도가 높았고, 야간집단이 주간집단보다 자발성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3년제 4년제 주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실현 정도를 조사한 엄과 하(1993)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성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야간집단의 자기수용성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결과이나 처음부터 야간학과에 자기수용성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였는지, 야간학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차이가 생긴것인지는 같은 대상자에게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종적인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주 야간 집단간의 유사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재수 경험 유무와 학과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야간집단의 약 78%가 재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과는 달리 야간집단의 76%가 자의로 학과 선택을 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의 야간집단이 주간보다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학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필요에 의해 학과 선택을 하였으므로 보다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집단임을 암시한다.

일반특성 중 부모생존 상태별, 출생순위별 자아실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현재 순위에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박윤수(198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학년별 자아실현 정도는 감수성 척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각각의 하위요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광자(197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이 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보다 더 자아실현화가 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숙의 결과인지, 고학년으로 갈수록 임상실습을 통해 보다 더 자아실현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이있는 고찰을 위해서는 간호학과 학생들과 다른 전공학과 학생들을 비교한 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종교 유무에 따라 실존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이광자(1976), 한성세(1979), 박윤수(1987), 엄과 하(199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무종교집단이 유종교집단보다 가치나 원칙 적용에 융통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재수 경험 유무에 따라 인간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자아실현 하위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는 자아실현 정도에 지점적인 영향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지향성, 자아실현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등의 척도에서, 전공학과 만족도에 따라서는 자아실현성, 자기긍정성 척도에서, 대학생 만족도에 따라서는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자기긍정성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만족도에 따른 자아실현의 결과는 엄과 하(1993)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학과 선택을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과는 무관한 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 및 부적응, 정신적인 불건강을 초래할 수 있다(이숙자, 1976; 홍경자, 1988)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대학진학 지도면에서 반드시 학생들의 동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야 하고,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학부모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또한 타의로 학과를 선택한 집단에게는 다른 동기유발 프로그램이나 전공학과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 교수와의 관계, 임상실습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아실현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실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봄으로써, 간호전문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1992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및 서울근교에 소재한 3개교 전문대학의 주·야간에 재학 중인 여자 간호전문대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김재은, 이광자의 자아실현검사(1977)를 사용하여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X²-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아실현 정도는 척도 4-6점 사이에 있어 중등도의 무난한 성격의 집단임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것은 자아실현성이고 가장 낮은 것은 포용성으로 나타났다.

대상집단과 한국 여대생 표준집단의 자아실현 비교에서 대상집단이 표준집단보다 자아실현성과 인간간의 척도가 높았고, 지향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포용성의 척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2. 주간집단이 야간집단보다 시간성, 실존성, 자기수용성 척도가 높았고, 야간집단이 주간집단보다 자발성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3. 학년별로는 자아실현의 하위요인 중 감수성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 유무별로는 실존성, 재수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인간관, 선택동기별로는 지향성, 자아실현성, 자발성과 자기긍정성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출생순위와 부모생존 상태는 자아실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공학과 만족도는 자아실현성과 자기긍정성에서, 대학생 생활 만족도는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과 자기긍정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과 선택동기가 좌의일수록, 전공학과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성과 자기긍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학진학 지도면에서 반드시 학생들의 동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진학지도 담당 관계자와 학부모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교육자들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이나 대학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자아실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과 효과 검증 등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1986).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집단상담의 활용 현황. 집단상담프로그램. 한양대학교 생활연구소, 17-40.
- 김미자(1983). 여고생의 자아실현을 돕는 방안으로서의 집단상담. 석사학위논문, 이화대학교.
- 김재은, 이광자(1983).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감.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윤수(1987). 자아정체감과 적응력 및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배순경(1977). 대학생의 자아실현성과 자아개념의 상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대학교.
- 서봉연(1988).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적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설기문 역(1988). 자아실현검사의 이해와 활용. R.R. Knapp 著.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엄미란, 하양숙(1993).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 23-38.
- 오미성(1988). 일부 간호전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

- 죽도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간선논문집, 12, 129-148.
- 이광자(1976). 정신과 간호실습 과정과 자기실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6(1), 29-40.
- 이상우, 정중진 共譯(1992). 인간성격의 이해-건강한 성격에 관한 제집권. Duane Schultz著.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99-143.
- 이소우, 박명자(1987). 정신간호상담에서 나타난 방송통신 대학생의 자아실현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17(1). 별책.
- 이숙자(1976). 간호학생의 학업성적과 성격검사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현숙(1984). 간호원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정훈(1971).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 한성세(1976). 대학생의 자아실현성과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허철수(1990). 자아실현 성장모형에 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아실현 행동특성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홍경자(1988).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한 고찰. 전국대학 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워크샵.
- Barlev, J.T., & Oleus, K.E.(1969).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18, 320-326.
- Erikson, E.(1960). The problem of ego identity. In M.R.Stein(Ed.), Identity and Anx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 Frick, K.B.(1971). Humanistic Psychology ; Interview with Maslow, Murphy and Rogers. Columbus : Charles E. Merrill.
- (1982). Conceptual Foundations and Self-Actualization : A contribution to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2(4), Fall, 33-52.
- Hall, C.S., & Lindzev.G.(1978). Theories of Personality(3rd ed.). NY : John Wiley & Sons.
- Ilardi, R.L., & May, W.T.(1968). A Reliability Study of Shorstrom's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8, 68-72.
- Kelly, E.C.(1962). The Fully Functioning Self in Combs, Perceiving Behaving, Becoming. ASCD, 9-20.
- Maslow, A.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 (1974).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 O. Von, Nostran Co.
- McClosky, J.(1974). Influencies of Rewards and Incentives on Staff Nuress Turnover Rate. Nursing Research, 23, 239-247.
- Newman, B.M., & Newman,P.R.(1984). Development through Life ; A psychosocial approach. Illinois, Homewood : The Dorsey Press.
- Olczak, P.V., & Goldman, J.A.(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ctualization & Psychological Matur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415-418.
- Petosa, R.A., Baun, R.A., Cangemi, J.P., & harryman, M.E.(1987).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and self-reported health practices Percep-Mot-Skills. 64(3 Pt 2), 1091-1094.
- Schultz, D.(1977). Growth psychology :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Y : D. Van Nostrand Co.
- Shostrom, E.L.(1966). EdITS Manual for the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Sandiego, CA :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1976). Actualizing Therapy ; Fundamentals for a Scientific Ethic. Sandiego, CA : EdITS.
- Thurston, I.R., & Brunclik, H.L.(1968).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Achievement in Nursing Education, Phase II. Nursing Reserch, 17, 265-268-재인용.
- Topalis, M., & Aguilera, D.L.(1978). Psychiatric Nursing(7th ed.). Louis : Mosby.
- Trueblood, R.W., & McHolland, J.D.(1970). Self-actualization and Humane potential group process. Evanston, Ill. : Kendall College. -재인용.
- Watson, J.(1985).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Connecticut : ACC.
- Young, E. R., & Jacobson, L.I.(1970). Effects of time-extended maraton group experiences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7, 247-251.

– Abstract –

A Study on Self – Actualiz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Nursing Students

*Hah, Yang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elf-actualization level of Junior College Nursing Students and to analyze the variables that may be related to self-actualization. A convenient sample of 346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ree colleges located in Seoul and Kyungki-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direct survey method from September 17 to October 2, 1992.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the self-actualization test modified by Kim & Lee(198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s, means, t-test, X^2 -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 PC⁺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self-actualization level of subjects was moderate. The subject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areas of Self actualizing Values and Nature of Man than the standardized normal groups. The subjects showed lower scores in the areas of Inner Directed Existentiality, Self acceptance and Capacity for In-

timiate Contact. 2) The subjects attending day junior college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areas of Time competent, Existentiality and Self Acceptance than those attending college in the evening. The subjects attending evening junior college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areas of Spontaneity than those attending college by day. 3) The junior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areas of Feeling Reactivity than freshman. The students with no religion showed higher scores in the areas of existentiality than those who had a religion. The group who had the experience of failure 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howed lower scores in the areas of Nature of Man than those without this experience. Those who chose their major voluntary showed scores higher in the areas of Inner Directed, Self Actualizing Values, Spontaneity and Self regard than the unsatisfied group. The group satisfied with college life showed higher scores in the areas of Time Competent, Inner Directed, Self Actualizing Values and Self Regard than the unsatisfied group.

In conclusion self actualization level depends on motivation of choice,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refore, and effective guidance program is required to improv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with college life.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